한승원의 추석 에세이

둥근 달 아래서의 행복한 만남

추사 김정희 선생은 칠십 세 되는 해에 한 친구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시를 주련으로 써 주었다.

"좋은 반찬은 두부 오이 생강 나물(大烹豆腐瓜薑菜)

"최고의 훌륭한 모임은 부부와 아들딸 손자(高會夫妻兒女孫)"

그 한쪽에 작은 글씨로 곁들여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다.

'이것은 촌 늙은이의 제일 가는 즐거움이 된다. 비록 허리춤에 말(斗)만큼 한 황금도장을 차고 밥상 앞에 시중 들어주는 첩이 수백 명 있다 하더라도 이런 맛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태양이 아버지의 정(精)이라면, 한가위의 만월은 어머니의 포근한 품안이다. 둥근 달은 신화적인 풍요의 원천인 것이다.

사람들은 둥근 달을 보면 고향과 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린다. 나도 타향살이를 하면서 달을 보고 눈물짓곤 했었다.

도시는 악마가 만들고, 자연친화적인 시골은 신(천사)이 만들었다. 자연 혹은 대지는 여신(어머니)의 품이다. 시멘트 숲으로 이루어진 도시의 사냥꾼들은 지치면 자연(원초적인 고향) 속으로 회귀하여 다 닳아버린 동력을 충전해 간다.

추석 명절에는 이 땅에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진다. 모두 고향의 어머니, 아버지 품을 찾아가는 것이다. 어머니 아버지의 품은 우주적인 자궁이다. 한가위 둥근 달이 비치는 이 세상 굽이 굽이에서는 최고로 좋은 행복한 만남이 이루어진다.

내가 사는 율산마을 앞의 들녘은 황금빛으로 변했다. 태풍이 비켜갔고, 적당하게 가물고 알맞게 비가 내려주어서 고추, 참깨, 벼, 고구마, 콩들이 잘 여물었다. 마을 주민들은 노인이 90퍼센트 이상인데, 그 가운데 80퍼센트가 늙은 홀어머니들이다.

둥근 달 그 자체인 그들은 모두 송편을 빚어놓고 도시에 나간 자식들을 기다린다. 그들은 도시의 자식들에게 "찻길 무섭다. 오지마라"하고 전화를 하지만 그것은 두고 쓰는 사랑의 거짓말이므로, 도시의 자식들은 어머니와 아버지 품안으로 모두 기를 쓰고 모여들기 마련이다. 그들은 원초적인 사랑과 그리움의 둥지,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추석을 지낸 다음, 여름철에 땀뻘뻘 흘리면서 농사 지어 놓은 고추, 햅쌀, 참깨, 고구마, 호박 들을 도시로 돌아가는 아들딸의 자동차 뒷간에 바리바리 실어줄 것이다.

머리 희끗희끗해진 나는, 유향 물씬 풍기는 어머니가 만들어준 송편을 먹고, 장에서 사다준 새 고무신에다 하얀 추석 빔을 입고 씨름을 하러 가고, 강강술래 구경을 가던 어린 시절을 생각한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이 추석을 전후해 바람처럼 구름처럼 당신 혼자서만 아는 멀고 먼 나라로 떠나가셔서 나는 우울해 있다.

철부지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서 칭찬을 들으려고 소를 열심히 뜯기고, 송아지에게 먹일 풀을 베었었는데, 좀 더 자라서는 잠을 쫓아가며 공부를 하고, 소설을 부지런히 쓰고, 동생들을 끌어안고 도와주었는데, 이제는 그 칭찬의 주체, 내가 몸담을 수 있는 포근한 원초적인 둥지는 소멸되었다.

도시 서민들의 삶은 어렵고 불안한 모양이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의 여파로 횟집과 수산물시장은 얼어붙었고, 수입 쇠고기로 인해 한우 가격은 떨어졌고, 물가는 치솟고 돈 가치는 떨어졌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젊은이들은 살길이 막막하다.

호주머니가 두둑해야 선물 꾸러미를 들고 고향에를 찾아갈 수 있고,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과 송편을 빚어 먹고 술잔을 기울일 수 있을 터인데, 웃음으로 가득 차있어야 할 추석이 가난한 자들에게 우울할 수밖에 없다.

'삼촌 조카 잘 되라고 빌지 말고 시절 좋아하라고 빌라'는 옛말이 있는데, 풍년이 들면 인심이 좋아져서 가난한 사람들이 넉넉하게 배불리 얻어먹을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 조상은 추석 명절에 둥근 달의 마음으로 나누려고 들었다. 송편을 만들어 이웃과 나누어 먹고, 자기가 농사지은 것, 잡은 물고기를 나누었다.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찾아 선물을 주고 위로를 했다. 그리하여 '일 년, 열두 달, 삼백 육십일 내내 오늘만 같아라.' 하는 말이 생겼다.

아내는 추석 이십여 일 전부터 모시의 부드러운 잎과 솔잎을 뜯어다가 꿀 넣은 송편을 만들고, 앞바다에서 나는 주꾸미를 사서 냉동시켰다가 그리운 먼 데 사람들에게로 부쳤다.

이 글을 읽은 당신의 한가위, 둥근 달 아래서의 행복한 모임을 축하한다. 〈소설가〉

스마트폰 '소통의 그늘'… 올 추석엔 가족과 눈 맞추며 대화하세요

이야기 좀 하고 삽시다

스마트폰 중독 심각 79.1%

가족과 있을때도 이용 35.2%

청소년, 성인보다 2배 이상

전문가상담 등 적극 노력 필요

〈독자 배한솔 제공〉

가족이 함께 모이는 추석을 앞두고 있지만 A씨는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다. 스마트폰에 빠져 가족과 대화를 거부하는 중학생 아들 때문이다.

중학교 입학 후 성적도 상위권이고 친구관계도 원만하던 아들은 1학년 때 스마트폰을 구입한 후 게임에 푹 빠졌다. 올해 초 게임만 하는 모습에 실망한 아빠가 화를 내며 손찌검을 했고, 이후로 아들은 입을 닫아버렸다. 한창 뛰어놀기 좋아할 시기 중학생 아들은 움직이는 자체를 싫어하며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하루종일 스마트폰에만 집착하고 있다.

'제 마음 속 아빠는 죽었어요.'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대화의 물꼬를 틀 뾰족한 방법이 없다. 아빠는 아들과의 관계를 포기한 듯 방관하고 있다. 고등학생인 누나는 엄마의 고민도 모른채 스마트폰 채팅에만 몰두한다.

A씨는 "원래 온순하던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갈등이 시작됐고 결국 대화가 중단되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고민을 호소했다. 스마트폰 사용 증가에 따른 가족 간 대화단절은 각종 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인터넷중독대응센터가 밝힌 '2012 인터넷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설문자 1만5000명 중 79.1%가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인터넷 중독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또 2012년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률은 2011년(11.4%) 보다 7% 증가한 18.4%로 성인(9.1%)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목적은 모바일 메신저 사용(67.5%), 온라인 게임(44.6%) 순으로 나타났다. 사용시간은 평균 4시간이었고 스마트폰 중독자들의 경우 7.3시간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스마트폰 사용량 증가에 따른 이용자들의 생활패턴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2 스마트폰이용실태조사'는 스마트폰 이용자의 77.4%가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스마트폰을 자주 확인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들은 '스마트폰이 없어서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다'(35.8%), '가족과 있을 때도 스마트폰만 계속 이용한 적이 있다'(35.2%)는 반응을 보였다. 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들의 경우 35.2%가 부모님과의 갈등을 겪고 있으며 학업방해(23.7%), 사용조절 자체 어려움(23.4%)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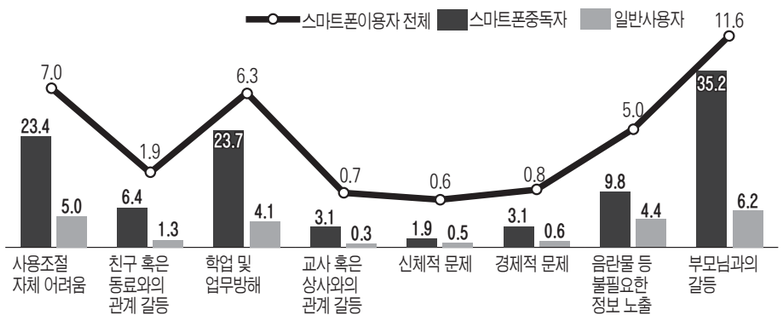
스마트워치 등 새로운 스마트 기기가 속속 출시되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만큼 대화단절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높아질 전망이다. 집에서도 가족간 대화를 말이 아닌 문자로 대신하는 가정이 늘고, 스마트 기기에 익숙치 않은 부모들은 자녀와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인터넷중독대응센터 박기희(여·48) 소장은 "스마트폰 중독률이 인터넷 중독률을 추월했음에도 사회가 이를 위기로 여기지 않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여대 유아교육과 김경란(여·48)교수 역시 "인스턴트 식품은 못 먹게 하는 부모들도 스마트폰은 쉽게 건네는데 아이를 쉽게 돌볼 수 있기 때문"이라며 "사회생활에 지친 부모들이 스마트폰으로 아이를 편하게 돌보려다 가족 간 대화 단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의 말과 행동에 관심을 갖고 차분히 유대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 스마트폰 과다사용 부작용 경험률(%)



〈자료:한국정보화진흥원〉

더도말고 덜도말고…

어쩌다가 양들이 목자들을 걱정하는 천주교회가 되었습니까?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들은 조직화된 소수일 뿐입니다!

➲세칭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을 포함한 일부 좌성향 사제와 수녀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들은 국보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부합하는 주장을 일삼았고, 2010년에는 교황 성하의 교도권을 무시하고 정진석 추기경님에게 사퇴를 겁박했으며, 지금도 제주도 해군기지, 한미 FTA 등 국민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국가사업들을 훼방하고 있습니다.

➲사제들의 일탈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 14일 대구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의 주도로 대구경북 지역의 사제, 수녀, 수도자 등 500여 명이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규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공개의 진상 규명,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한데 이어, 타교구 일부 사제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천주 교회가 모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더 이상 방치하시렵니까?

➲사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북한의 인권유린 · 종교 말살 참상에는 침묵하면서 대한민국만을 헐뜯는 것을 지켜만 보시렵니까?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장병들의 피땀으로 지켜온 북방한계선(NLL)을 폄하하면서 김정일의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대화록 공개만을 비난하는 이들의 정치 놀음을 무한정 방치하시렵니까? 국회와 제도권에 진출하여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종북(從北)세력에 대한 견제가 절실한 시기에 '국정원 무력화'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들의 편파성을 계속 용인하시렵니까?

➲사제들의 보안법 철폐 요구, 미군기지 반대, 촛불 시위, 거리 미사…이제 지겹지도 않으십니까? 성제(聖祭)를 모셔야 할 사제들이 로만칼라로 위장하고 교회의 권위를 악용하여 자신들의 편향된 사회논리를 신앙교리인양 퍼뜨리는 현실이 지겹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침묵으로만 일관하시렵니까?

그대들로부터 '예우와 존경'을 철회한다!

➲정도를 걷는 이 땅의 사제님들, 저희는 변함없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헐뜯는 사제들은 들으라. 우리는 참고 또 참았다. 이제 우리는 그대들로부터 '사제에 대한 예우와 존경'을 철회한다. 그대들이 정교(政敎)분리 원칙을 무시하고 제대(祭臺)를 떠나 길거리에서 선동 시위나 벌이고 싶다면, 차라리 제의(祭衣)를 벗어던지고 정치를 하라. 하느님도 언론의 자유도 투표도 없는 북한, 십자가와 성모상 대신 수만 개의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동상이 산하를 감시하는 북한을 그토록 동경한다면, 북으로 가라. 거기서 출세를 하든 순교를 하든 맘대로 하라. 성인(聖人)들의 고귀한 순교혈(殉敎血)로 지켜온 교회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말라. 그러나, 우리는 그대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교회를 더 이상 분열시키지 말고 참사제가 되어 달라고.

애국 교우 여러분, 후원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일부 사제들과 수녀들의 일탈은 말이나 호소로 고쳐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수차에 걸쳐 확인했습니다. 이제 침묵에서 깨어나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다수의 애국 평신도들을 대변하는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을 결성하여 이들의 반교회적 · 반국가적 행동에 제동을 걸고자 합니다. 이것이 평신도의 현세질서 바로세우기 의무와 국가에 대한 사명을 명시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1965)」 제2장과 제5장에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뜻에 공감하시는 전국 각지의 애국 교우 여러분께서는 적극 동참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함께 행동해 주실 분들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은 더 이상 금이 아닙니다.

2013. 9. 17.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발기인 일동

발기인(가나다순) 가갑손(충청대 명예교수) 강동순(전 KBS 감사) 강종호(해성 상임고문) 강주희(전 한국평신도협 사무총장) 권경수(전 여성연합회 회장) 권혁노(전 평신도협 임원) 김건일(전 인천평신도협 회장) 김경우(전 평화은행장) 김경환(전 제주평신도협 회장) 김득수(전 평신도협 감사) 김명열(수원 아미동 총회장) 김상덕(국제한인경제인협회 대표) 김송자(전 노동부차관) 김순자(전 평신도협 임원) 김승만(한테크 회장) 김영석(전 우석대 총장) 김영숙(전 국회의원) 김용진(전 교장) 김욱주(평신도협 임원) 김원률(평신도협 임원) 김종구(전 법무장관) 김종기(전 국회의원) 김종두(전 평신도협 임원) 김중위(전 환경부 장관) 김진수(전 평신도협 임원) 김찬수(전 평신도협 임원) 김태구(전 대우자동차 회장) 김학민(평신도협 임원) 김한구(고려대 외래교수) 김현욱(전 국회의원) 구자억(전 평신도협 임원) 노창수(전 평신도협 임원) 류무희(해운업체 임원) 마영환(전 평신도협 임원) 민경양(성복회 회장) 박관용(전 국회의장) 박긍식(전 과기처 장관) 박명석(전 단국대 교수) 박명준(전 평신도협 임원) 박래병(평신도협 임원) 박성원(전 교감) 박성하(전 평신도협 임원) 박영화(성령새신 부회장) 박용수(전 대학총장) 박정한(대구가톨릭대 교수) 박찬도(평신도협 임원) 박태환(전 평신도협 임원) 박행조(전 조선공사 임원) 박흥수(교수) 배창모(전 중권업협회 회장) 서만규(평신도협 임원) 서석구(대구 변호사) 서석용(교수) 서정숙(평신도 선교사) 성경창(광명학원 이사) 손병두(전 한국평신도협 회장) 손병문(전 평통 서울부의장) 손춘수(전 마산 평신도협 회장) 손행교(전 평신도협 임원) 신무송(전 평신도협 임원) 신석정(도데카 회장) 신현제(전 동국대 부총장) 안일성(목우회 총무) 양천진(전 청주평협 회장) 여규태(전 평신도협 회장) 염송옥(염송옥피부내면연구소장) 염창렬(전 국가기관 임원) 염형민(전 분당성당 총회장) 오광성(전 가톨릭커뮤니케이션협의회 회장) 오만진(전 대전평신도협 회장) 오익환(장안이엔씨 전무) 유완숙(프리랜서) 윤은기(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 은주연(언론인)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대표) 이금룡(전 가톨릭언론인협의회 고문) 이세원(전 평신도협 임원) 이시현(전 평신도협 임원) 이용제(서울교구사회복지 총회장) 이재영(작가) 이정숙(전 평신도협 임원) 이정자(전 평신도협 임원) 이지아(평신도) 이택용(평신도협 임원) 이홍균(전 평신도협 임원) 임만택(바보나눔재단 운영위원) 임희영(전 평신도협 임원) 장혁표(전 부산평신도협 회장) 전세원(시인) 전옥선(가톨릭언론인협의회 회장) 정건일(전 독일은행 부산지점장) 정무부(서울사회복지 운영위원) 정종휴(전남대 교수) 정한술(기업체 사장) 정환민(한서대 겸임교수) 조남호(전 서울서초구청장) 조소영(평신도협 임원) 조태로(전 수원평신도협 회장) 조창원(전 소록도 병원장) 차유정(프리랜서) 최미혜(전 평신도협 임원) 최상권(교수) 최옥식(전 대구평신도협 회장) 최정기(전 가톨릭언론협의회 회장) 한상국(전 평신도협 임원) 함병헌(평신도협 임원) 허필수(전 평신도협 임원) 현안상(평신도협 임원) 홍대선(전 평신도협 임원) 홍순웅(기업 대표이사) 황선철(전 은행지점장) 총112명

• 후원계좌 : 기업은행 501-025929-01-012 / 국민은행 434701-01-275906 / 농협 352-0645-4958-63 • 연락 : 간사 서정숙 루치아 02-412-4541 / seo5311@hanmail.net